

인터넷 보편화 시대 청소년의 성의식 · 성행동 · 성관련 특성

조경원
춘해대학 보건행정과

Adolescent Sexual Consciousnes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in Internet Generation

Kyoung-Won Cho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Choonhae College

Abstract

In recent days, Korean society falls into disorder in sexual culture with transition of sexual consciousness by prevalence of sexual liberation trend through popularization of internet. Korean society, however, does not have essential counter-plans to cope with this disorder.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the realities about adolescent sexual consciousness, attitudes and behaviors around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order to propose educational courses for adolescent sexual problems. For the investigation, I made up a questionnaire and surveyed by 500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a same area from 1st October, 2007 to 6th October, 2007 and I analyzed results from the survey. In the results, I found that males and the group having experience in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reported more sexual consciousness. I also found that females and the group having no experience in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reported more vestal consciousness.

Key Words : Adolescent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Internet Generation

I. 서 론

성의식과 성적 태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콘돔의 사용[1]과 청소년들의 성행동[2,3,4] 등에 많이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행동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성적쾌감이라는 요소로 인해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성행동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걱정이나 성관계로 인한 전염 질환들은 콘돔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들은 첫 성관계 이후에 성행동에 대하여 더욱 관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몇몇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방 건강 행위나 의학적 보편성 준수[5]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건강 행위들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이라는 것은 목표 행동의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이익과 행동의 계기 등 태도의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한다[6]. 태도와 성적 의사 결정의 관계는 나이, 성별, 종교와 같은 인구학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적 태도에 대한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성행동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2],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절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7]는 등의 결과들이다. 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층을 상대로 한 177개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성에 대한 보다 관대한 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성적 행위에 대한 걱정, 두려움, 죄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최근의 조사된 자료들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미국에서의 관련 연구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 동안 청소년의 성관계와 10대에 의한 출생률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Healthy People 2010 정책에 따라 미국의 국가적 우선 과제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2].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와 관련된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나 사회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청소년의 생리적 변화에도 빠른 현상이 일어나,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조화롭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성 문제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13]. 또한 사이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궁금증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학교 교육, 부모님, 친구 등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이버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금기하는 내용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성 문제로 인한 많은 성일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14].

특히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성지식과 성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성에 대한 무분별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발달을 앞당김과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켜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성도덕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퇴폐적인 형태의 성 표현에 주저없이 참

여하는 개방 풍조로 인해 혼전 성관계 비율이 증가하고, 더욱이 최근엔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건전한 성윤리 정립을 위한 대안 수립이 시급하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의 실정을 알아보고 인터넷 보편화 시대의 청소년들의 성인식, 성태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도시의 3개 중학교(10학급), 4개 고등학교(13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일~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500명이 연구대상이 되어 연구의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나.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현재 보건행정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 각각 출신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께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기술한 뒤 즉시 회수하였다.

2. 설문지 문항 구성

인터넷 보편화 시대의 청소년의 성의식 · 태도 · 행동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구경화의 중학생의

성 의식과 성교육실태 조사 연구[13], 김영희의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15], 서상원의 대중매체가 한국교회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6]를 토대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인터넷 이용 행태 3문항, 성 의식 9문항, 성 행동 20문항, 성 관련 특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문항 구성

번 인	구 성 내 용	문항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교 유형, 종교, 부모 생존 여부	4문항
인터넷 이용 행태	인터넷 이용하는 곳,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정보	3문항
성 의식	이성의 신체구조, 성적 감정 반응, 종교적 신앙심, 음란물 공유, 음란물 시청, 이성교제, 스킨십, 결혼 전 순결 · 동정, 성경험 있는 사람과의 결혼	9문항
성 행동	이성교제, 스킨십 경험, 육체적 성관계의 경험, 경험이유, 경험시기, 심리상태, 임신 경험, 피임사용 여부, 피임사용 방법, 사후피임약, 음란매체 경험여부, 처음 접한 시기, 자위행위	20문항
성 관련 특성	성교육 경험, 성교육 획득 수단, 성교육 만족도, 성교육 내용, 성상담, 성교육 실시시기, 성상담 정보 획득, 인터넷획득 성정보내용	8문항
총 합		44문항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일반사항과 인터넷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성관련특성, 성의식, 성행동은 성별과 학력(중/고)에 따라서 χ^2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의식은 부모유무, 이성교제경험, 성행위 경험 여부에 따라 t-test를 실시하였고, 성행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일반 사항

조사 대상자 전체 응답자 500명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중, 고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197명(39.4%), 고등학생이 303명(60.6%)로 고등학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 253명(50.6%), 여성 247명(49.4%)이 응답하였다. 종교는 없음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205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146명(29.2%), 기독교가 120명(24.0%), 천주교가 20명(4.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가 457명(91.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만 살아계신 경우는 38명(7.6%)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 수	구 분	수	%
성별		남	253	50.6
		여	247	49.4
학교 유형		중학생	197	39.4
		고등학생	303	60.6
종교		기독교	120	24.0
		불교	146	29.2
		천주교	20	4.0
		없음	205	41.0
		기타	9	1.8
부모 생존 여부		양친생존	457	91.4
		편부	21	4.2
		편모	17	3.4
		양친사망	5	1.0

나. 인터넷 이용 행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는 표 3과 같다. 인터넷 이용 장소는 주로 집에서 이용하는 응답자가 442명(88.4%)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3시간 정도 280명(56.0%), 1시간 미만 160명(32.0%), 3-5시간 정도 37명(7.4%)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오락이 282명(5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이나 의학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1.8%)으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행태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 수	구 분	수	%
인터넷 사용 장소		집	442	88.4
		학교	12	2.4
		PC방	43	8.6
		기타	3	0.6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60	32.0
		1~3시간 정도	280	56.0
		3~5시간 정도	37	7.4
		5시간 이상	23	4.6
인터넷 사용 목적		컴퓨터 관련	19	3.8
		오락	282	56.4
		건강, 의학	9	1.8
		생활, 취미	145	29.0
		사회, 문화	14	2.8
		기타	31	6.2

2. 청소년의 성관련 특성, 성의식, 성행동

가. 남녀 청소년의 성관련 특성, 성의식, 성행동
남녀 청소년의 성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교육 만족도,

성교육 희망내용, 인터넷 성 정보 유형 항목들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성교육 경험, 성 정보 획득수단, 성 상담, 성교육 실시 시기, 성상담 획득 수단 항목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성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은 100% 성교육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교육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5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을 성교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생물 교육 또는 위생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성 정보 획득 수단에 있어서는 학교가 74.8%라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13.0%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성 정보 획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성 정보의 획득이 성교육 이외의 다른 수단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교육 만족도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도가 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성 지식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성교육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55.8%로 나타나 향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욱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교육 희망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들은 이성교제(38.3%)나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32.8%)에 대한 내용을 원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이성교제(29.6%), 성폭력 예방(22.3%), 임신 및 출산(18.6%), 피임(15.4%) 등에 대한 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은 강제적인 성관계나 우발적인 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상담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큰 차이 없이 친구(32.6%), 선생님(29.0%), 인터넷(21.0%) 등을 통해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실시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43.2%)이 가장 많이 나타나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상담 획득 수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41.6%), 지인(23.2%), 학교 상담실(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끝으로 인터넷 성 정보유형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것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것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남녀 간의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자체보다는 이성교제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로 생각하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남녀 청소년의 성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신체구조, 음란물 공유, 음란물 시청, 결혼전 순결 및 동성 등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적감정 반응, 종교적신앙심, 이성교제, 스킨십, 성경험 있는 자와의 결혼 등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구조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1%, 여학생의 경우 51.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여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인 감정이나 반응이 남녀 간에 다른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적 신앙심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음란물 공유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45.5%, 여학생의 경우 61.5%,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24.9%, 여학생의 경우 9.3%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의 경우 중고생 나이이면 사춘기이거나 사춘기가 막 지난 경우가 많아 이 시기가 성적 호기심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음란물에 대한 욕구가 여학생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 역시 음란물 공유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같은 이유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 전 순결 동정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23.7%, 여학생의 경우 11.7%, '그렇다'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43.9%, 여학생의 경우 63.6%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의 성적 충동이 여학생보다 강하다는 것과 원한다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남녀 청소년의 성관련 특성에 대한 χ^2 검증 결과

구 분	남(N=253)	여(N=247)	계(N=500)	단위: 명(%) 결과
성교육 경험	있다 105(41.5) 없다 148(58.5)	247(100) 0(0)	352(70.4) 148(29.6)	DF=1 $\chi^2=205.242$
성정보 획득수단	학교 180(71.1) 가정 8(3.2) 친구 21(8.3) 인터넷 38(15.0) 기타() 6(2.4)	194(78.5) 5(2.0) 15(6.1) 27(10.9) 6(2.4)	374(74.8) 13(2.6) 36(7.2) 65(13.0) 12(2.4)	DF=4 $\chi^2=4.006$
성교육 만족도	매우그렇지않다 30(11.9) 그렇지않다 51(20.2) 그저그렇다 117(46.2) 그렇다 47(18.6) 매우그렇다 8(3.2)	12(4.9) 27(10.9) 162(65.6) 39(15.8) 7(2.8)	42(8.4) 78(15.6) 279(55.8) 86(17.2) 15(3.0)	DF=4 $\chi^2=23.099***$
성교육 희망내용	신체적, 심리적 변화 83(32.8) 이성교제 97(38.3) 임신 및 출산 24(9.5) 피임 25(9.9) 성폭력 예방 24(9.5)	35(14.2) 73(29.6) 46(18.6) 38(15.4) 55(22.3)	118(23.6) 170(34.0) 70(14.0) 63(12.6) 79(15.8)	DF=4 $\chi^2=44.609***$
성 상담	부모님 23(9.1) 선생님 77(30.4) 형제, 자매 10(4.0) 친구 80(31.6) 인터넷 63(24.9)	43(17.4) 68(27.5) 11(4.5) 83(33.6) 42(17.0)	66(13.2) 145(29.0) 21(4.2) 163(32.6) 105(21.0)	DF=4 $\chi^2=10.852$
성교육 실시시기	유치원 27(10.7) 초등학교 102(40.3) 중학교 109(43.1) 고등학교 15(5.9)	36(14.6) 114(46.2) 83(33.6) 14(5.7)	63(12.6) 216(43.2) 192(38.4) 29(5.8)	DF=4 $\chi^2=5.436$
성상담 획득수단	방송매체 23(9.1) 문자매체 9(3.6) 인터넷 123(48.6) 지인 45(17.8) 학교 상담실 53(20.9)	28(11.3) 10(4.0) 85(34.4) 71(28.7) 53(21.5)	51(10.2) 19(3.8) 208(41.6) 116(23.2) 106(21.2)	DF=4 $\chi^2=13.243$
인터넷 성 정보 유형	스키십 35(13.8) 이성교제 73(28.9) 피임방법 19(7.5) 성 관계 85(33.6) 기타() 41(16.2)	47(19.0) 110(44.5) 14(5.7) 30(12.1) 46(18.6)	82(16.4) 183(36.6) 33(6.6) 115(23.0) 87(17.4)	DF=4 $\chi^2=36.520***$

표 5. 남녀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χ^2 검증 결과

구 분		남(N=253)	여(N=247)	계(N=500)	단위: 명(%) 결 과
신체구조	그렇지않다	35(13.8)	22(8.9)	57(11.4)	DF=2 $\chi^2 = 8.231^*$
	그저 그렇다	71(28.1)	97(39.3)	168(33.6)	
	그렇다	147(58.1)	128(51.8)	275(55.0)	
성적 감정 반응	그렇지않다	20(7.9)	25(10.1)	45(9.0)	DF=2 $\chi^2 = 0.757$
	그저 그렇다	88(34.8)	83(33.6)	171(34.2)	
	그렇다	145(57.3)	139(56.3)	284(56.8)	
종교적 신앙심	그렇지않다	117(46.2)	92(37.2)	209(41.8)	DF=2 $\chi^2 = 5.109$
	그저 그렇다	90(35.6)	94(38.1)	184(36.8)	
	그렇다	46(18.2)	61(24.7)	107(21.4)	
음란물 공유	그렇지않다	115(45.5)	152(61.5)	267(53.4)	DF=2 $\chi^2 = 23.725^{***}$
	그저 그렇다	75(29.6)	72(29.1)	147(29.4)	
	그렇다	63(24.9)	23(9.3)	86(17.2)	
음란물 시청	그렇지않다	93(37.2)	131(53.0)	225(45.0)	DF=2 $\chi^2 = 23.456^{***}$
	그저 그렇다	93(36.8)	90(36.4)	183(36.6)	
	그렇다	66(26.1)	26(10.5)	92(18.4)	
이성 교제	그렇지않다	29(11.5)	20(8.1)	49(9.8)	DF=2 $\chi^2 = 2.993$
	그저 그렇다	104(41.1)	118(47.8)	222(44.4)	
	그렇다	120(47.4)	109(44.1)	229(45.8)	
스킨십	그렇지않다	54(21.3)	38(15.4)	92(18.4)	DF=2 $\chi^2 = 11.541$
	그저 그렇다	99(39.1)	134(54.3)	233(46.6)	
	그렇다	100(39.5)	75(30.4)	175(35.0)	
결혼 전 순결, 동침	그렇지않다	60(23.7)	29(11.7)	89(17.8)	DF=2 $\chi^2 = 21.708^{***}$
	그저 그렇다	82(32.4)	61(24.7)	143(28.6)	
	그렇다	111(43.9)	157(63.6)	268(53.6)	
성경험 있는 자외의 결혼	그렇지않다	76(30.0)	94(38.1)	170(34.0)	DF=2 $\chi^2 = 5.467$
	그저 그렇다	99(39.1)	97(39.3)	196(39.2)	
	그렇다	78(30.8)	56(22.7)	134(26.8)	

남녀 청소년의 성행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임사용 여부, 음란만화 구독 여부, 음란잡지 구독 여부, 음란비디오 시청 여부, 음란동영상 시청 여부,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 자위행위 경험, 자위행위의 경험이 없는 이유,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는 이유, 자위행위 후 심리상태 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들은 성관계시에 자신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2.8%로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93.7%가 무응답으로 피임사용 여부에 대한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사용 방법 문항에서 피임약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음란만화를 접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68.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39.7%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또한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여학생들보다 크다는 일반적인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음란 잡지나 음란 비디오에 비해 음란 동영상을 접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이 77.9%, 여학생이 4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

한 음란물이 많이 범람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위행위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남학생의 73.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93.5%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남녀 간의 자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여학생의 50.2%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는 이유로는 남학생의 47.8%가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6. 남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χ^2 검증 결과

단위: 명(%)

구 분		남(N=253)	여(N=259)	계(N=509)	결 과
이성교제 경험	없다	123(48.6)	117(47.4)	240(48.0)	DF=1 $\chi^2=0.078$
	있다	130(51.3)	130(52.6)	260(52.0)	
스킨십 경험	없다	163(64.4)	159(64.4)	322(64.4)	DF=1 $\chi^2=0.000$
	있다	90(35.6)	88(35.6)	178(35.6)	
성관계 경험	없다	237(93.7)	238(96.4)	475(95.0)	DF=1 $\chi^2=1.890$
	있다	16(6.3)	9(3.5)	25(5.0)	
없는 이유	무엇인지 몰라서	43(17.0)	23(9.4)	19(3.8)	DF=5 $\chi^2=17.372$
	부도덕하기 때문에	114(45.1)	102(41.8)	216(43.5)	
	순결을 잃을까봐	32(12.6)	54(22.1)	86(17.3)	
	성병에 걸릴까봐	14(5.5)	17(7.0)	31(6.2)	
	임신을 할까봐	36(14.2)	43(17.6)	79(15.9)	
	무응답	14(5.5)	5(2.0)	19(3.8)	
경험 이유	호기심 때문에	4(1.6)	3(1.2)	7(1.4)	DF=5 $\chi^2=6.674$
	성욕을 참지 못해서	8(3.2)	2(0.8)	10(2.0)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1(0.4)	1(0.4)	2(0.4)	
	친구의 강요로	0(0.0)	2(0.8)	2(0.4)	
	기타	3(1.2)	1(0.4)	4(0.8)	
	무응답	237(93.7)	238(96.4)	475(95.0)	
첫 경험 기	초등학교	5(2.0)	0(0.0)	5(1.0)	DF=4 $\chi^2=7.990$
	중학교	8(3.2)	9(3.6)	17(3.4)	
	고등학교	2(0.8)	0(0.0)	2(0.4)	
	기타	1(0.4)	0(0.0)	1(0.2)	
	무응답	237(93.7)	238(96.4)	475(95.0)	
행위 후 심리상태	기분이 좋다	5(2.0)	3(1.2)	8(1.6)	DF=5 $\chi^2=2.597$
	아무렇지도 않다	4(1.6)	2(0.8)	6(1.2)	
	죄의식에 빠진다	1(0.4)	1(0.4)	2(0.4)	
	성병 걱정	1(0.4)	0(0.0)	1(0.2)	
	임신 걱정	5(2.0)	3(1.2)	8(1.6)	
	무응답	237(93.7)	238(96.4)	475(95.0)	
임신 경험	없다	15(5.9)	8(3.2)	23(4.6)	DF=2 $\chi^2=2.061$
	있다	1(0.4)	1(0.4)	2(0.4)	
	무응답	237(93.7)	238(96.4)	475(95.0)	
피임사용 여부	없다	10(4.0)	81(32.8)	91(18.2)	DF=2 $\chi^2=71.420^{***}$
	있다	6(2.4)	8(3.2)	14(2.8)	
	무응답	237(93.7)	158(64.0)	395(79.0)	
피임사용 방법	콘돔	10(4.0)	8(3.2)	18(3.6)	DF=3 $\chi^2=5.153$
	피임약	0(0.0)	0(0.0)	0(0.0)	
	월경주기	0(0.0)	1(0.4)	1(0.2)	
	기타	4(1.6)	0(0.0)	4(0.8)	
	무응답	239(94.5)	238(96.4)	477(95.4)	
사후 피임	알고 있다	56(22.1)	76(30.8)	132(26.4)	DF=1 $\chi^2=4.796$
	모른다	197(77.9)	171(69.2)	368(73.6)	
음란 만화	없다	79(31.2)	150(60.7)	229(45.8)	DF=1 $\chi^2=43.826^{***}$
	있다	174(68.8)	97(39.3)	271(54.2)	
음란 잡지	없다	195(77.1)	58(24.9)	418(83.6)	DF=1 $\chi^2=15.903^{***}$
	있다	58(22.9)	24(9.7)	82(16.4)	
음란 영화	없다	95(37.5)	120(48.6)	215(43.0)	DF=1 $\chi^2=6.208$
	있다	158(62.5)	125(49.4)	283(57.0)	

표 6. 남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χ^2 검증 결과 - 계속

단위: 명(%)

구 분		남(N=253)	여(N=259)	계(N=509)	결 과
음란 비디오	없다	139(54.9)	193(78.1)	332(66.4)	DF=1 $\chi^2=30.114***$
	있다	114(24.1)	54(21.9)	168(33.6)	
음란 동영상	없다	55(21.7)	140(56.7)	195(39.0)	DF=1 $\chi^2=87.102***$
	있다	197(77.9)	107(43.3)	304(60.8)	
	무응답	1(0.4)	0(0.0)	1(0.2)	
성인 사이트	없다	85(33.6)	184(74.5)	269(53.8)	DF=1 $\chi^2=84.102$
	있다	168(66.4)	63(25.5)	231(46.2)	
음란물 접한 시기	9세이하	13(5.1)	1(0.4)	14(2.8)	DF=2 $\chi^2=64.633***$
	10-12세	37(14.6)	28(11.3)	65(13.0)	
	13-15세	161(63.6)	112(45.3)	273(54.6)	
	16세 이상	21(8.3)	46(18.6)	67(13.4)	
	접해본 적이 없다	21(8.3)	60(24.3)	81(16.2)	
지위행위 경험	없다	187(73.9)	16(6.5)	203(40.6)	DF=1 $\chi^2=235.673***$
	있다	66(26.1)	231(93.5)	297(59.4)	
없는 이유	무응답	188(74.3)	16(6.5)	204(40.8)	DF=5 $\chi^2=238.340***$
	무엇인지 몰라서	17(6.7)	53(21.5)	70(14.0)	
	부도덕하기 때문에	34(13.4)	124(50.2)	158(31.6)	
	순결을 잃을까봐	6(2.4)	21(8.5)	27(5.4)	
	성병에 걸릴까봐	7(2.8)	29(11.7)	36(7.2)	
	임신을 할까봐	1(0.4)	4(1.6)	5(1.0)	
있는 이유	무응답	66(26.1)	229(92.7)	295(59.0)	DF=5 $\chi^2=230.035***$
	호기심 때문에	121(47.8)	10(4.0)	131(26.2)	
	친구의 강요로	13(5.1)	2(0.8)	15(3.0)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5(2.0)	1(0.4)	6(1.2)	
	성욕을 참지 못해서 기타 ()	40(15.8) 8(3.2)	5(2.0) 0(0.0)	45(9.0) 8(1.6)	
첫경험 시기	무응답	66(26.1)	229(92.7)	295(59.0)	DF=3 $\chi^2=229.992$
	초등학교	35(13.8)	1(0.4)	36(7.2)	
	중학교	141(55.7)	16(6.5)	157(31.4)	
	고등학교	11(4.3)	1(0.4)	12(2.4)	
행위 후 심리상태	무응답	66(26.1)	229(92.7)	295(59.0)	DF=5 $\chi^2= 229.835***$
	아무렇지도 않다	66(26.1)	4(1.6)	70(14.0)	
	기분이 좋다	71(28.1)	8(3.2)	79(15.8)	
	죄의식에 빠진다	43(17.0)	5(2.0)	48(9.6)	
	성병 걱정	6(2.4)	1(0.4)	7(1.4)	
	임신 걱정	1(0.4)	0(0.0)	1(0.2)	

나. 중고생의 성관련 특성, 성의식, 성행동

중고생의 성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 고생의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한 항목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교육 희망 내용에 대한 문항에서 중학생의 경우 32.0%가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것을 희망하는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 36.6%가 이성교제에 대한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 차이에 따른 관심의 차이가 나타나 있으며, 성 상담에 대한 문항에서는 중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상담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은 친구에게 상담한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중고생의 성관련 특성에 대한 χ^2 검증 결과

단위: 명(%)

구 분		중(N=197)	고(N=303)	계(N=500)	결 과
성교육 경험	있다	189(95.9)	163(53.8)	352(70.4)	DF=1 $\chi^2=101.751$
	없다	8(4.1)	140(46.2)	148(29.6)	
성정보 획득 수단	학교	140(71.1)	234(77.2)	374(74.8)	DF=4 $\chi^2=19.940$
	가정	12(6.1)	1(0.3)	13(2.6)	
	친구	11(5.6)	25(8.3)	36(7.2)	
	인터넷	31(15.7)	34(11.2)	65(13.0)	
	기타()	3(1.5)	9(3.0)	12(2.4)	
성교육 만족도	매우그렇지않다	12(6.1)	30(9.9)	42(8.4)	DF=4 $\chi^2=5.197$
	그렇지않다	33(16.8)	45(14.9)	78(15.6)	
	그저그렇다	105(53.3)	174(57.4)	279(55.8)	
	그렇다	39(19.8)	47(15.5)	86(17.2)	
	매우그렇다	8(4.1)	7(2.3)	15(3.0)	
성교육 희망내용	신체적, 심리적 변화	63(32.0)	55(18.2)	118(23.6)	DF=4 $\chi^2=18.255$
	이성교제	59(29.9)	111(36.6)	170(34.0)	
	임신 및 출산	17(8.6)	53(17.5)	70(14.0)	
	피임	27(13.7)	36(11.9)	63(12.6)	
	성폭력 예방	31(15.7)	48(15.8)	79(15.8)	
성 상담	부모님	30(15.2)	36(11.9)	66(13.2)	DF=4 $\chi^2=13.512$
	선생님	71(36.0)	74(24.4)	145(29.0)	
	형제, 자매	10(5.1)	11(3.6)	21(4.2)	
	친구	50(25.4)	113(37.3)	163(32.6)	
	인터넷	35(18.3)	69(22.8)	105(21.0)	
성교육 실시시기	유치원	29(14.7)	34(11.2)	63(12.6)	DF=3 $\chi^2=4.564$
	초등학교	92(46.7)	124(40.9)	216(43.2)	
	중학교	67(34.0)	125(41.3)	192(38.4)	
	고등학교	9(4.6)	20(6.6)	29(5.8)	
성상담 획득수단	방송매체	20(10.2)	31(10.2)	51(10.2)	DF=4 $\chi^2=4.952$
	문자매체	10(5.1)	9(3.0)	19(3.8)	
	인터넷	78(39.6)	130(42.9)	208(41.6)	
	지인	40(20.3)	76(25.1)	116(23.2)	
	학교 상담실	49(24.9)	57(18.8)	106(21.2)	
인터넷 성정보 유형	스키십	34(17.3)	48(15.8)	82(16.4)	DF=4 $\chi^2=7.405$
	이성교제	75(38.1)	108(35.6)	183(36.6)	
	피임방법	18(9.1)	15(5.0)	33(6.6)	
	성 관계	35(17.8)	80(26.4)	115(23.0)	
	기타()	35(17.8)	52(17.2)	87(17.4)	

중고생의 성의식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구조, 이성교제, 스킨십에 대한 항목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의 신체구조와 그 기능을 잘 알고 있는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중학생들 중 20.3%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가 바람직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중학생들 중 19.3%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성교제 중 스킨십은 바람직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중학생들 중 28.4%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중고생의 성의식에 대한 χ^2 검증 결과

구 분		중학생(N=253)	고등학생(N=247)	계(N=500)	결 과
신체구조	그렇지않다	40(20.3)	17(5.6)	57(11.4)	DF=2 $\chi^2=9.655***$
	그저 그렇다	72(36.5)	96(31.7)	168(33.6)	
	그렇다	85(43.1)	62.7(38.0)	275(55.0)	
성적 감응 반응	그렇지않다	24(12.2)	21(6.8)	45(9.0)	DF=2 $\chi^2=2.335$
	그저 그렇다	77(39.1)	94(31.0)	171(34.2)	
	그렇다	96(48.7)	188(62.0)	284(56.8)	
종교적신앙심	그렇지않다	79(40.1)	130(42.9)	209(41.8)	DF=2 $\chi^2=2.335$
	그저 그렇다	69(35.0)	115(38)	184(36.8)	
	그렇다	49(24.9)	58(19.1)	107(21.4)	
음란물 공유	그렇지않다	113(57.4)	154(50.8)	267(53.4)	DF=2 $\chi^2=9.762$
	그저 그렇다	43(21.8)	104(34.3)	147(29.4)	
	그렇다	41(20.8)	45(14.9)	86(17.2)	
음란물 시청	그렇지않다	103(52.3)	122(40.3)	225(45.0)	DF=2 $\chi^2=8.387$
	그저 그렇다	58(29.4)	125(41.3)	183(36.6)	
	그렇다	36(18.3)	56(18.5)	92(18.4)	
이성 교제	그렇지않다	38(19.3)	11(3.6)	49(9.8)	DF=2 $\chi^2=33.118***$
	그저 그렇다	78(39.6)	144(47.5)	222(44.4)	
	그렇다	81(41.1)	148(41.1)	229(45.8)	
스킨십	그렇지않다	56(28.4)	36(11.9)	92(18.4)	DF=2 $\chi^2=22.032***$
	그저 그렇다	78(39.6)	155(51.2)	233(46.6)	
	그렇다	63(32.0)	112(37.0)	175(35.0)	
결혼 전 동성결, 동성	그렇지않다	30(15.2)	59(19.5)	89(17.8)	DF=2 $\chi^2=4.420$
	그저 그렇다	50(25.4)	93(30.7)	143(28.6)	
	그렇다	117(59.4)	151(49.8)	268(53.6)	
성경험 있는 자와의 결혼	그렇지않다	86(43.7)	84(27.7)	170(34.0)	DF=2 $\chi^2=14.001$
	그저 그렇다	69(35.0)	127(41.9)	196(39.2)	
	그렇다	42(21.3)	92(21.3)	134(26.8)	

중고생의 성행동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임사용의 여부 문항과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 문항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상의 2가지 문항 이외의 문항들은 중고생의 나이가 다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피임사용 여부 문항에서는 중학생들의 경우 92.4%가 무응답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27.4%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생들은 아직 피임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피임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나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13-1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들 중 20.1%는 16세 이상에서도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 중 24.9%가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응답과 관계가 있으며 이 비율의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야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 중 10.6%만이 음란물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대답과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9. 중고생의 성행동에 대한 χ^2 검증 결과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N=509)	결 과
이성교제 경험	없다	83(42.1)	157(51.8)	240(48.0)	DF=1 $\chi^2= 4.485$
	있다	114(57.9)	146(48.2)	260(52.0)	
스킨십 경험	없다	114(57.9)	208(68.6)	322(64.4)	DF=1 $\chi^2= 6.050$
	있다	83(42.1)	95(31.4)	178(35.6)	
성관계 경험	없다	182(92.4)	293(96.7)	475(95.0)	DF=1 $\chi^2=4.677$
	있다	15(7.6)	10(3.3)	25(5.0)	
없는 이유	무엇인지 몰라서	30(15.5)	36(11.9)	66(13.3)	DF=5 $\chi^2= 9.740$
	부도덕하기 때문에	88(45.4)	128(42.2)	216(43.5)	
	순결을 잃을까봐	32(16.5)	54(17.8)	86(17.3)	
	성병에 걸릴까봐	14(7.2)	17(5.6)	31(6.2)	
	임신을 할까봐	20(10.3)	59(19.5)	79(15.9)	
	무응답	10(5.2)	9(3.0)	19(3.8)	
경험 이유	호기심 때문에	5(2.5)	2(0.7)	7(1.4)	DF=5 $\chi^2= 7.070$
	성욕을 참지 못해서	5(2.5)	5(1.7)	10(2.0)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2(1.0)	0(0.0)	2(0.4)	
	친구의 강요로	1(0.5)	1(0.3)	2(0.4)	
	기타	2(1.0)	2(0.7)	4(0.8)	
	무응답	182(92.4)	293(96.7)	475(95.0)	
첫 경험 시기	초등학교	4(2.0)	1(0.3)	5(1.0)	DF=4 $\chi^2= 10.196$
	중학교	11(5.6)	6(2.0)	17(3.3)	
	고등학교	0(0.0)	2(0.7)	2(0.4)	
	기타	0(0.0)	1(0.3)	1(0.2)	
	무응답	182(92.4)	293(96.7)	475(95.0)	
행위 후 심리상태	기분이 좋다	5(2.5)	3(1.0)	8(1.6)	DF=5 $\chi^2= 7.295$
	아무렇지도 않다	3(1.5)	3(1.0)	6(1.2)	
	죄의식에 빠진다	1(0.5)	1(0.3)	2(0.4)	
	성병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0(0.0)	1(0.3)	1(0.2)	
	임신이 될까봐 걱정된다	6(3.0)	2(0.7)	8(1.6)	
	무응답	182(92.4)	293(96.7)	475(95.0)	
임신 경험	없다	14(7.1)	9(3.0)	23(4.6)	DF=2 $\chi^2= 4.768$
	있다	1(0.5)	1(0.3)	2(0.4)	
	무응답	182(92.4)	293(96.7)	475(95.0)	
피임사용 여부	없다	8(4.1)	83(27.4)	91(18.2)	DF=2 $\chi^2= 43.740^{***}$
	있다	7(3.6)	7(2.3)	14(2.8)	
	무응답	182(92.4)	213(70.3)	395(79.0)	
피임사용 방법	콘돔	10(5.1)	8(2.6)	18(3.6)	DF=3 $\chi^2= 4.877$
	피임약	0(0.0)	0(0.0)	0(0.0)	
	월경주기	0(0.0)	1(0.3)	1(0.2)	
	기타	3(1.5)	1(0.3)	4(0.8)	
	무응답	184(93.4)	293(96.7)	477(95.4)	
	사후 피임	알고 있다	58(29.4)	74(24.4)	
모른다	139(70.6)	229(75.6)	368(73.6)		
음란 만화	없다	102(51.8)	127(49.5)	229(45.8)	DF=1 $\chi^2=4.678$
	있다	95(48.2)	176(58.1)	271(54.1)	
음란 잡지	없다	157(79.7)	261(86.1)	418(83.6)	DF=1 $\chi^2=3.615$
	있다	40(20.3)	42(13.9)	82(16.4)	
음란 영화	없다	103(52.3)	112(37.0)	215(43.0)	DF=1 $\chi^2=11.433$
	있다	94(47.7)	191(63.0)	285(57.0)	

표 9. 중고생의 성행동에 대한 χ^2 검증 결과 - 계속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N=509)	결 과
음란 비디오	없다	125(63.5)	207(68.3)	332(66.4)	DF=1 $\chi^2=1.267$
	있다	72(36.5)	96(31.7)	168(33.6)	
음란 동영상	무응답	0(0.0)	1(0.3)	1(0.2)	DF=2 $\chi^2=6.624$
	없다	90(45.7)	105(34.7)	195(39.0)	
	있다	107(54.3)	197(65.0)	304(60.8)	
성인사이트	없다	116(58.9)	153(50.5)	269(53.8)	DF=1 $\chi^2=3.379$
	있다	81(41.1)	150(49.5)	231(46.2)	
음란물 접한시기	9세이하	7(3.6)	7(2.3)	14(2.8)	DF=4 $\chi^2=45.757***$
	10-12세	33(16.8)	32(10.6)	65(13.0)	
	13-15세	102(51.8)	171(56.4)	273(54.6)	
	16세이상	6(3.0)	61(20.1)	67(13.4)	
	접해본 적이 없다	49(24.9)	32(10.6)	81(16.2)	
자위행위경험	없다	121(61.4)	179(58.1)	297(59.4)	DF=1 $\chi^2=0.551$
	있다	76(38.6)	127(41.9)	203(40.600)	
없는 이유	무응답	78(39.6)	126(41.6)	204(40.8)	DF=5 $\chi^2=10.017$
	무엇인지 몰라서	22(11.2)	48(15.8)	70(14.0)	
	부도덕하기 때문에	60(30.5)	98(32.3)	158(31.6)	
	순결을 잃을까봐	14(7.1)	13(4.3)	27(5.4)	
	성병에 걸릴까봐	19(9.6)	17(5.6)	36(7.2)	
	임신을 할까봐	4(2.0)	1(0.3)	5(1.0)	
있는 이유	무응답	119(60.4)	176(58.1)	295(59.0)	DF=5 $\chi^2=8.934$
	호기심 때문에	43(21.8)	88(29.0)	131(26.2)	
	친구의 강요로	5(2.5)	10(3.3)	15(3.0)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5(2.5)	1(0.3)	6(1.2)	
	성욕을 참지 못해서	21(10.7)	24(7.9)	45(9.0)	
	기타 ()	4(2.0)	4(1.3)	8(1.6)	
첫 경험 시 기	무응답	119(60.4)	179(58.1)	295(59.0)	DF=3 $\chi^2=10.827$
	초등학교	19(9.6)	17(5.6)	36(7.2)	
	중학교	59(29.9)	98(32.3)	157(31.4)	
	고등학교	0(0.0)	12(4.0)	12(2.4)	
행위 후 심리상태	무응답	119(60.4)	176(58.1)	295(59.0)	DF=5 $\chi^2=1.820$
	아무렇지도 않다	24(12.2)	46(15.2)	70(14.0)	
	기분이 좋다	33(16.8)	46(15.2)	79(15.8)	
	죄의식에 빠진다	18(9.1)	30(9.9)	48(9.6)	
	성병 걱정	3(1.5)	4(1.3)	7(1.4)	
	임신 걱정	0(0.0)	1(0.3)	1(0.2)	

3. 부모유무, 성별, 이성교제경험, 성행위 경험 여부에 따른 성의식

성별, 성행위 경험 여부, 부모유무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T-검정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나타나 있다.

가. 성별에 따른 성의식

표 10은 성별에 따른 성의식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신체구조 지식(남자 : 3.57, 여자 : 3.49), 음란물 공유(남자 : 2.75, 여자 : 2.23), 음란물 시청(남자 : 2.85, 여자 : 2.40), 성 경험자와의 결혼 가능성(남자 : 2.97, 여자 : 2.71)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종교적 신앙심에 의한 충동 억제(남자 : 2.53, 여자 : 2.81), 혼

전 순결, 동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남자 : 3.32, 여자 : 3.74)은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성에 더욱 개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0. T-검정 : 성별에 따른 성의식 차이

항 목	남 자	여 자	T	P
신체구조 지식	3.57±.972	3.49±.826	.932	.352
성적 감정 반응	3.60±.870	3.56±.848	.548	.584
종교적 신앙심	2.53±1.146	2.81±1.029	-2.875	.004
음란물 공유	2.75±1.175	2.23±.989	5.280	.000
음란물 시청	2.85±1.066	2.40±.952	5.008	.000
이성 교제	3.47±.966	3.43±.812	.517	.605
스킨십	3.25±1.023	3.15±.810	1.252	.211
혼전순결, 동정	3.32±1.197	3.74±1.038	-4.243	.000
성경험 자와의 결혼	2.97±1.119	2.71±1.094	2.583	.010

나. 성행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의식

표 11는 성행위 경험에 따른 성의식 차이에 대한 통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 감정 반응이 남녀 간에 다르다는 것(있다 : 3.96, 없다 : 3.56), 종교적 신앙심에 의한 충동 억제(있다 : 2.96, 없다 : 2.65), 음란물 공유(있다 : 3.00, 없다 : 2.47), 음란물 시청(있다 : 2.92, 없다 : 2.61), (있다 : 3.96, 없다 : 3.56), 이성교제의 바람직함(있다 : 4.00, 없다 : 3.42), 스킨십의 바람직함(있다 : 3.44, 없다 : 3.19), 결혼 전 순결 동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있다 : 3.96, 없다 : 3.51)의 항목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성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결혼 전 순결 동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순결 동정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 관습이 강하게 뿌리 잡고 있어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의식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표 11. T-검정 : 성행위 경험에 따른 성의식 차이

항 목	있 다	없 다	T	P
신체구조 지식	3.48±.963	3.53±.900	-0.295	.768
성적 감정 반응	3.96±.790	3.56±.858	2.280	.023
종교적 신앙심	2.96±1.369	2.65±1.081	1.120	.273
음란물 공유	3.00±1.118	2.47±1.110	2.337	.020
음란물 시청	2.92±1.038	2.61±1.34	1.458	.145
이성 교제	4.00±.764	3.42±.890	3.688	.001
스킨십	3.44±1.083	3.19±.915	1.321	.187
결혼 전 순결, 동정	3.96±1.060	3.51±1.141	1.940	.053
성경험 자와의 결혼	3.00±1.141	2.83±1.095	0.568	.575

다. 부모 유무에 따른 성의식

표 12은 부모유무에 따른 성의식 차이에 대한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신체구조 지식(부모생존 : 2.47, 기타 : 2.09), 성적 감정 반응이 남녀 간에 다르다는 것(부모생존 : 2.50, 기타 : 2.28)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적 신앙심에 의한 충동 억제(부모생존 : 1.76, 기타 : 2.16), 음란물 시청(부모생존 : 1.71, 기타 : 2.00), 성 경험자와의 결혼 가능성(부모생존 : 1.91, 기타 : 2.16)의 항목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의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순결의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구경화(2000), 김영희(1992), 김수련(1996), 서상원

(1998), 이구실(2001), 오덕자(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4. 청소년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사항, 인터넷 이용행태, 성의식, 성관련 특성 중 청소년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영향요인은 종속변수인 성행위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혼전순결 성의식, 성인사이트 접속경험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2.2배, 성인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T-검정 : 부모유무에 따른 성의식 차이

항 목	부모생존	기 타	T	P
신체구조 지식	2.47±.665	2.09±.840	2.847	.007
성적 감정 반응	2.50±.643	2.28±.766	1.804	.078
종교적 신앙심	1.76±.759	2.16±.785	-3.303	.001
음란물 공유	1.61±.741	1.88±.905	-1.889	.065
음란물 시청	1.71±.747	2.00±.756	-2.441	.015
이성 교제	2.37±.643	2.28±.766	0.734	.467
스킨십	2.16±.708	2.19±.764	-0.193	.847
결혼 전 순결, 동정	2.35±.762	2.40±.821	-0.334	.738
성경험 자와의 결혼	1.91±.774	2.16±.785	-2.079	.038

표 13.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β	P	odds
성별	-.904	.162	.405
학교유형	-1.093	.080	.335
종교	.228	.340	1.256
부모생존여부	.722	.148	2.059
인터넷 사용장소			
집	-17.930	.999	.000
학교	-18.350	.999	.000
PC방	-18.340	.999	.000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993	.026	.370
성의식			
이성 신체구조 인지	.096	.732	1.101
남녀간 성적 차이	.389	.245	1.475
종교가 성적충동 억제 가능	.012	.963	1.012
음란물 공유	.362	.200	1.436
음란물 청취	-.055	.864	.946
청소년 이성교제	.721	.043	2.057
스킨십	.170	.546	1.185
혼전 순결	.816	.003	2.261
성경험자와의 결혼	.222	.359	1.249
음란매체경험			
음란잡지	.961	.155	2.614
음란영화	-.522	.388	.593
음란비디오	.638	.326	1.892
음란동영상	.604	.345	1.830
성인사이트	-2.130	.003	.119
성정보 획득수단			
학교	-.487	.745	.614
가정	19.343	.998	251588408.928
친구	-1.440	.406	.237
인터넷	-1.251	.417	.286
인터넷획득 성정보종류			
스킨십	-18.296	.996	.000
이성교제	-17.809	.996	.000
피임방법	-18.123	.996	.000
성관계	-18.580	.996	.000

IV. 결 론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 개방 풍조가 만연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성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성문화의 혼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인격 형성 및 일만한 성숙과 성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인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여 청소년 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제시의 기본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되었다.

조사 대상은 일개 도시의 3개 중학교(10학년), 4개 고등학교(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연구 대상이 되어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 성의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순결의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력이 높고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성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가정보다 친구나 인터넷에서 획득하고, 인터넷에서 성관련 정보 획득 시 스킨십이나 이성 교제보다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자가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의 성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때 남녀, 연령에 따른 콘텐츠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성교제 경험 유무,

성행위 경험 유무에 따른 차별화된 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 [1] Reitman D, St Lawrence J, Jefferson KW, et al. Predictor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ondom use and HIV risk behavior. *AIDS Educ Prev*, 1996;8:pp.499-515.
- [2] Romer D, Black M, Ricardo I, et al. Social influences on the sexual behavior of youth at risk for HIV exposure. *Am J Public Health*, 1994;84:pp.977-985.
- [3] Stanton BF, Li X, Black MM, et al. Longitudin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sexual perceptions, intentions, and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 African-Americans. *J Adolesc Health*, 1996;18:pp.10-19.
- [4] Meier AM. Adolescents' transition to .rst intercourse, religiosity, and attitudes about sex. *Soc Forces*, 2003;81:pp.1031-1052.
- [5] Sheeran P, Abraham C. The Health Belief Model. In: Conner M, Norman P (eds). *Predicting health behaviour: Research and practice with social cognitive models*.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1996, pp.23-61.
- [6] Rosenstock IM.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 Monogr 1974;2:pp.328-335.
- [7] Basen-Engquist K, Masse LC, Coyle K, et al. Validity of scales measuring the psychosocial determinates of HIV/STD-related risk behavior in adolescents. Health Educ Res, 1999;14:pp.25-38.
- [8] Oliver MB, Hyde JS.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 Bull, 1993;114:pp.29-51.
- [9] Gall AL, Mullet E, Sha-ghi SR. Age, religious beliefs, and sexual attitudes. J Sex Res, 2002;39:pp.207-216.
- [1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eenage births in the United States: State trends, 1991.2000, an update. Natl Vital Stat Report, 2000;50:pp.1-4.
- [1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1. MMWR CDC Surveill Summ, 2002;51:pp.1-68.
- [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y People 2010. With Understanding and Improving Health and Objectives for Improving Health, 2nd ed. [WWW document]. 2000. URL: <http://www.healthypeople.gov/Publications>.
- [13] 구경화, “청소년의 성 의식과 성교육실태 조사 연구”, 2000, pp.10-15.
- [14] 오덕자, “사이버시대 청소년의 성 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가치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2003;19:pp.719-733.
- [15]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학원, 1992, pp.2-3, pp.67-72.
- [16] 서상원, “대중매체가 한국교회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1998, pp.50-52.